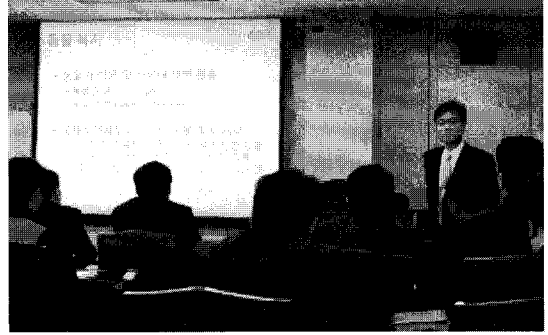


두산생물자원(주)

두산생물자원 영업회의의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박근효) 영업본부는 지난 10월 21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생명자원학 임신재 교수님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에 대한 특강과, 축종별 PM들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축종별로 선정된 JPM의 시장현황과 백두사료의 새 가족인 된 경력사원들의 시장동향, 구매팀의 원료동향까지 유익한 정보공유의 장이었으며 매일 진행되는 영업회의의 학습/정보공유의 시간을 발판삼아 DFC의 열정과 의지를 굳건히 하고 역량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자리였다.



제조부문 공장장 취임

지난 11월 10일, 두산생물자원 제조부문 공장장으로 현영호 부장이 취임하였다. 26여년의 시간을 두산그룹과 함께하며 삼화왕관에서 영업과 생산현장의 경험이 있는 현영호 공장장은 2010년 10월 두산생물자원에 전입하여 “나를 깨우자 생각을 바꾸자”로 공장혁신TFT를 구축하고 “뒤집어라, 생각하라, 달라져라”로 혁신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변화와 의지를 실천하고, 향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생산팀장으로는 영업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수근 차장이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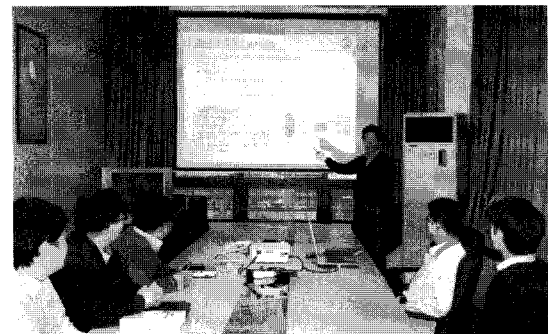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두산생물자원 제조부문은 공장혁신·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고의 품질생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눈높이 교육 실시

두산생물자원은 지점별 영업사원에 맞도록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역량향상과 스킬(skill)개발을 위하여 축종별 PM들이 지역상황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산생물자원의 영업사원들의 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최고의 축산전문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카길에그리퓨리나

**퓨리나 세븐목장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 개최
생애 총 산유량 5산 60,000kg 목표와 사례 제시**

2011년 11월 16일, 퓨리나 사료(대표: 이보균, www.purinafeed.co.kr) 11지구(영업이사:장성수)는 경기도 연천 귀빈웨딩홀에서 세븐목장 (대표:조인세) 퓨리나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150여명의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낙농 시장상황에서 미래 경쟁력 있는 낙농 목장 목표와 운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특히 유대가 인상된 시점에서 현재 평균 경제산 2.4산에 21,100kg의 산유량이 FTA 등의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생애 총 산유량 5산 60,000kg”라는 새로운 생산성 목표를 보여주며, 실 사례로 확신을 주었다.

유재경 퓨리나 축우판매부장은 “이 목표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생산성 규모를 1년 내에 120%, 5년 내에 150%이상 끌어 올려 한다. 고능력우와 분만 초기우에 대한 30일 정도의 특별한 영양 및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경산우가 되기 때문에, 육성우 관리 및 건유/전환기 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종축 개량이 목장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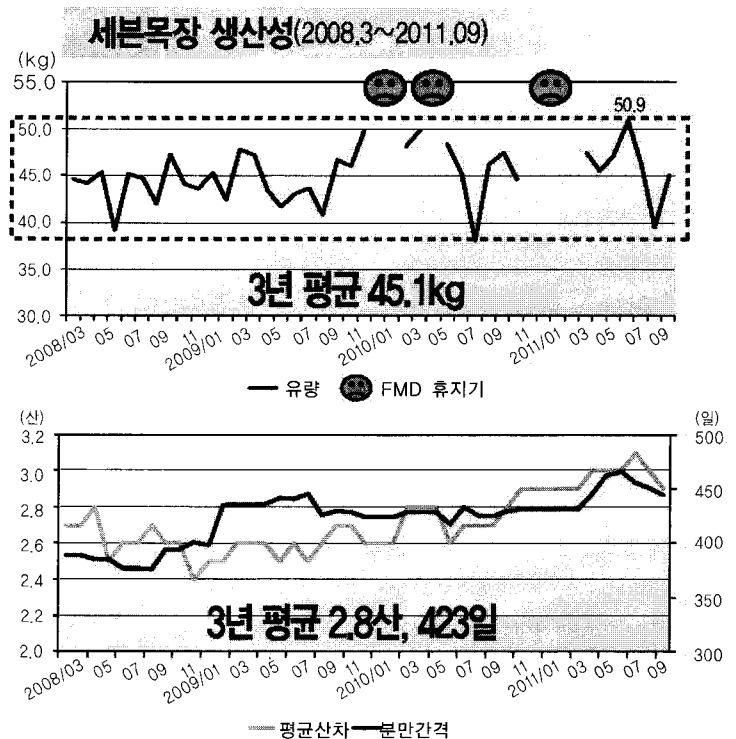
생애 총 산유량 5산 60,000kg를 실제 보여주고 있는 세븐목장의 3년간 생산성과 수익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세븐목장은 2008년 9월부터 퓨리나사료와 파트너를 맺어, 3년 평균 검정성적 평균 두당 산유량 45.1kg/유지율 3.6%/유단백 3.0%/경제산차 2.8산/분만간격

423일의 유량생산성과 번식생산성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었고, 2010년 검정최우수농가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목장이다.



조인세 사장님 내외와 함께

조인세 사장은 “퓨리나 계단식 육성우 프로그램과 건유우/전환기 프로그램을 접목하였고, 이것이 목장 생산성과 수익성이 기본이 되었다. 검정원 시절에 가축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선배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목장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 최대한의 시간을 써왔다”고 소감을 밝혀 동료농가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주)우성사료

“대한민국 낙농리더 K-Farm 초청 세미나” 실시

지난 11월 24일 대전 소재 리베라호텔에 전국의 쟁쟁한 낙농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주최한 “대한민국 낙농리더 K-Farm 초청 세미나”가 바로 그 현장이다. 한 미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축산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업 분야별 다양한 활로를 찾고자 하는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박중수교수(충남대 축산학과)는 “미래 성공한 낙농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주제 강의에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40%에 달하는 축산업의 붕괴는 곧 농촌경제의 붕괴를 뜻한다. 하루속히 축산의 새 틀을 짜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너무 염려만 할 일만은 아니다. 한류라는 대세를 기회로 삼아 중국이나 일본을 공략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시장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유(市乳)를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우성사료 이재규PM은 “낙농 발전을 위해서는 낙농산업의 파이(시장)를 키워야 한다.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트렌드를 보면 유제품 시장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목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성우를 크게 키우고, 도태를 최소화 하여 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K-Farm으로 선정된 60여 목장 중 대항목장의 최광현사장은(경북 칠곡군) “뜻하지 않게 어린 나이에 2세 경영을 시작해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2011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을 수상하기 까지는 함께 목장을 경영하는 지방 검정회의 동료들과 종축개량협



맨 왼쪽 우성사료 표광수 상무와 K-Farm 인증 농가들

회, 우성사료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낙농을 대표하는 K-Farm으로써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목장을 경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사료의 마케팅과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표광수 상무는 “80년대 4만호 이던 낙농가 수가 현재 6천호로 줄었으며 앞으로 10년 후 4천호 정도로 그 수가 줄겠지만 여기 모인 K-Farm 목장들은 대한민국 낙농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우성사료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K-Farm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산인을 지칭하는 말로 FTA 상황의 치열한 환경에서도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장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낙농을 이끌어갈 주역들로 우성사료와 함께 성장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

네덜란드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Schothorst Feed Research)와 슬로텐(Sloten)회사가 연구 분야 파트너십 체결

지난 10월 5일 유럽 최고의 사료연구소인 네덜란드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장(Dr. Piet van der Aar)과 슬로텐 연구소장(Steffen Rouwers)은 양사간 연구분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향후 5년 동안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에서는 송아지의 분만에서 이유시기까지의 연구, 그리고 이유 후 일생 동안의 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슬로텐 회사의 비전인 “분만 후 초기 송아지 성장 상태가 젖소의 일생 동안의 유 생산과 번식 능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분만 후 주간의 송아지 사양관리가 젖소의 일생 동안의 최적 유 생산 능력과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에서는 슬로텐 회사의 자돈 사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번 연구분야 협력 조인식을 통하여 슬로텐의 송아지 대용유 제품(Sprayfo)에 대한 연구와 사양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송아지의 분만 시부터 육성기 이후 성장하여 몇 산차까지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일하다.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스콧호스트 연구소의 과학적인 실험, 연구 데이터를 통하여 송아지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분만 후 1주 간의 송아지 영양 프로그램 설계에 적용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송아지의 육성이 젖소의 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것이다. 또한 비육우에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슬로텐 연구소장(Steffen Rouwers)에 의하며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와의 파트너십 협정을 통하여 회사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송아지 시기의 최적 성장은 송아지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젖소의 성적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송아지 육성기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항생제의 처방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슬로텐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송아지의 육성이 젖소의 일생 동안 성적을 좌우한다’는 명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에서는 슬로텐 회사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연구 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된다. 연구 시설에는 송아지를 80두를 각 일령 별로 수용하고 음수공급 설비도 갖추게 된다. 비육용 송아지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금년 말까지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스콧호스트 사료연구소장은 “새로운 통찰력과 농장관리 계획안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